

어린이 보육시설 질을 높이자 96.4.11

교사증원·다양한 프로그램 확보 절실...관련단체들 정부에 정책 건의

김미경 기자

“어린이집에서 뭘 먹었느냐고 물어보면 매일매일 ‘단무지’라고 이야기 해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비디오 봤다는 소리만 해요.”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쏟아내는 불만들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양적 팽창 위주로 이루어졌던 어린이집 정책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련단체와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남미영)와 ‘민간보육시설연합회’(회장 한숙희)는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마련해 오는 1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쪽에 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이 제안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재교육 체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남미영 회장은 “이제는 부모들이 단순히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 보육의 질 문제에 훨씬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 뿐 아니라 교사수를 늘리고 대우를 높이는 등의 장기대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이 낮은 임금과 오랜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질 높은 보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낮은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은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확산에서도 잘 나타난다.

출자금 3백만원에 월 40만~50만원의 높은 보육료를 내야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지난 9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전국적으로 10여군데 이상 생겨날 정도로 넓혀진 것은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해 주고 있다.

다섯살짜리 딸을 동네 어린이집에 보내다 올해초부터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보낸 정창균(42·서울 송파구 가락동)씨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지만 보육 철학과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형편 등으로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없는 부모들은 더욱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이기범 교수는 “어린이집을 양적으로 충분히 늘린 뒤 질의 문제를 생각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다”면서 “어린이집 시설에 대규모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